



4강 향한 단판 승부 '킵오프'

프로축구 '삼성 하우젠컵 2007' 6강 플레이오프가 30일 오후 수원 삼성-성남 일화, 전남 드래곤즈-인천 유나이티드의 한판 승부로 열린다. 지난 시즌 챔피언 결정전에서 만났던 수원-성남전이 빅 카드다.

무패 선두 성남이 정규리그 1위, 수원이 2위로 최강팀의 충돌이다. 팬들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첼시의 대결에 견주어볼 수도 있다.

전력 지수는 성남의 근소한 우위로 전망되고 있다. 성남은 시즌 내내 실전 엔트리만 15명 정도로 운영할 정도로 베스트 라인업이 견고하다. 김두현, 김상식의 진두 지휘 아래 공수 조직력이 톱나카처럼 돌아간다.

지난 주 최대 고비였던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산둥 루닝(중국)전에서 완승을 거둬 분위기도 좋다.

하지만 김학범 성남 감독이 마음을 놓긴 어렵다. 팀 내 최다 득점자인 브라질 용병 모파가 팔꿈치 가격으로 두 경기 출전 금지 징계를 받아 나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신 러시아에서 돌아온 김동현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 김동현은 4월1일 수원과 정규리그 1차전에서 두 골을 터트리

오늘 프로축구 컵대회 PO



며 3-1 완승을 이끌었다. 차범근 수원 감독은 안정환을 믿어보기로 했다. 안정환은 정규리그에선 활약이 미미했지만 컵 대회에선 4골을 넣고 있다. 김남일을 스리백(3-back)의 중앙 수비로 놓고 양상민, 송종국을 좌우 날개로 쓴

다. '친정팀 킬러' 김대우에게도 한 방을 기대한다.

컨디션이 살아난 '원사 원킬' 나드손은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 조커로 투입해 활력을 불어넣을 생각이다.

수원은 작년 챔피언스리그 성남에 3연패를 당해 실적이 절실할 때다.

작년 10월22일 전북전부터 19경기 연속 무패(11승8무)를 달리는 성남은 무패 행진을 '20'으로 늘릴 기회.

플레이오프 전장의 승자는 6월20일 A조 1위 울산 현대와 결승 진출을 다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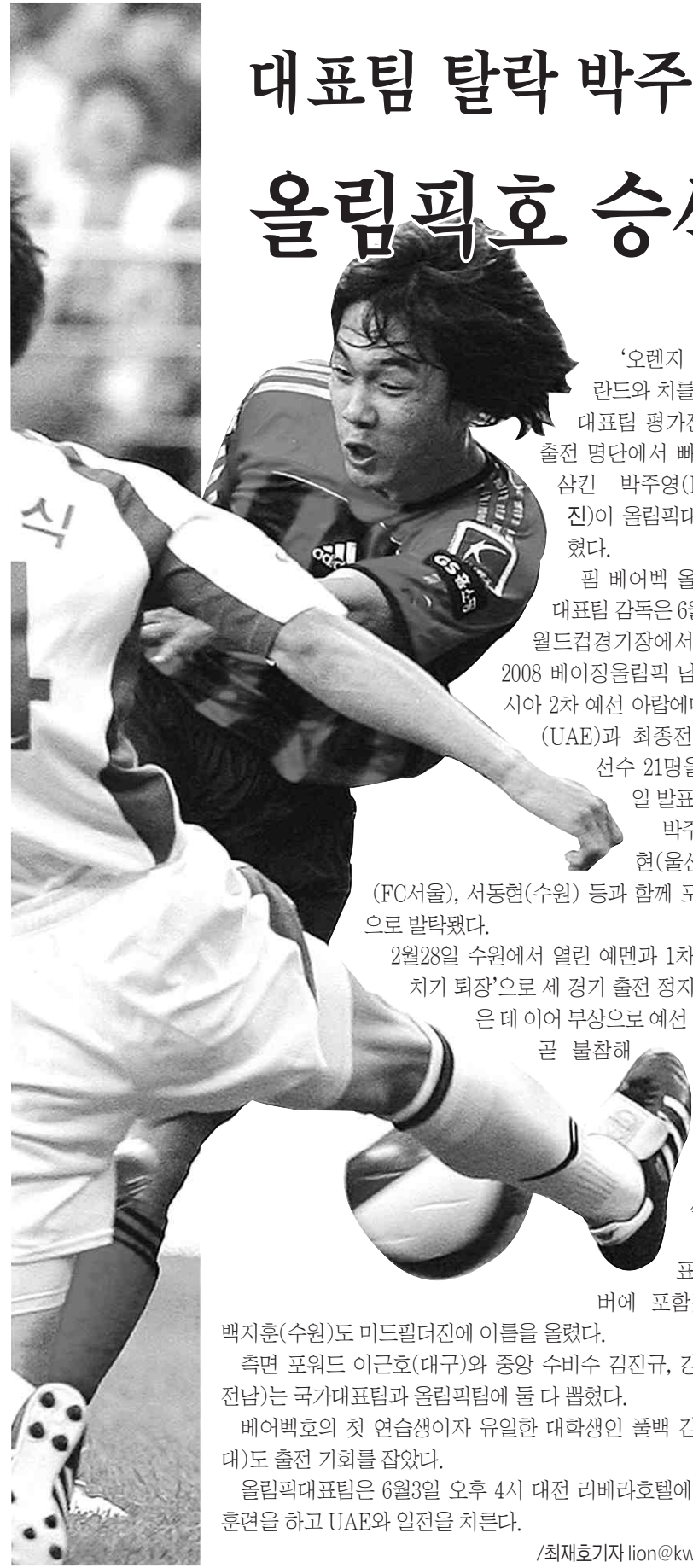
지난해 FA컵 우승팀 전남은 적지 않은 선전으로 남아간다.

이번 시즌 두 팀은 3월31일 득점이 비겼지만 작년엔 전남이 3전 전승으로 맞대결을 압도했다.

허정무 전남 감독은 일본계 브라질 용병 산드로 히로시와 레안드로를 내세웠고, 박이천 인천 감독은 컵 대회 두 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올린 방승환과 '세르비아 특급' 대안으로 맞붙을 뺐다. 전남-인천전 승자는 6월20일 상암벌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을 '귀네슈호' FC서울과 4강 플레이오프를 치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대표팀 탈락 박주영 올림픽호 승선



'오렌지 군단' 네덜란드와 치를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6월2일) 출전 명단에서 빠져 눈물을 삼킨 박주영(FC서울·사진)이 올림픽대표팀에 뽑혔다.

김 베이백 올림픽 축구 대표팀 감독은 6월6일 대전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08 베이징올림픽 남자축구 아시아 2차 예선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최종전에 출전할 선수 21명을 확정, 29일 발표했다.

박주영은 양동현(울산), 심우연(FC서울), 서동현(수원) 등과 함께 포워드 요원으로 발탁됐다.

2월28일 수원에서 열린 예선과 1차전에서 '배치기 퇴장'으로 세 경기 출전 금지 징계를 받은 데 이어 부상으로도 예선 4경기에서 줄곧 불참해 온 박주영은 3개월 만에 올림픽호에 승선했다. 역시 대표팀 예비 멤버에 포함됐다 빠진

백지훈(수원)도 미드필더전에 이름을 올렸다. 측면 포워드 이근호(대구)와 중앙 수비수 김진규, 강민수(이상 전남)는 국가대표팀과 올림픽팀에 둘 다 뽑혔다. 베이백호의 첫 연습생이자 유일한 대학생인 풀백 김창훈(고려대)도 출전 기회를 잡았다. 올림픽대표팀은 6월3일 오후 4시 대전 리베라호텔에 모여 사흘 훈련을 하고 UAE와 일전을 치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최경주·양용은 PGA 동반출전

한국 골프 선수 가운데 세계랭킹이 가장 높은 최경주(37·나이키골프)와 두번째 순위인 양용은(35·테일러메이드)이 두 달 만에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대회에 동반 출전한다.

최경주와 양용은의 재회 무대는 31일(한국시간) 밤부터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시의 듀어필드빌리지골프장(파72·7천366야드)에서 개막하는 메모리얼토너먼트.

'살아있는 전설' 잭 니클로스가 고향에 지어놓은 골프장에서 여는 이 대회는 105명에게만 초청장을 보내는 특급대회다. 세계랭킹 50위

내일 메모리얼토너먼트 개막 우즈·미켈슨 등 정상급 참가

이내 정상급 선수를 비롯해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선수 위주로 출전 명단을 짰다.

최경주는 2002년부터 6년 동안 개근을 하고 있고 양용은은 처음 초대 받아 지난 4월 마스터스대회 이후 2개월여 만에 동반 출전이 성사됐다.

최경주는 2004년 공동 5위, 2005년 공동 8위 등 두 번이나 상위권에 입상해 메모리얼토너먼트와 제법 궁합이 잘 맞았다.

니클로스의 명성에 힘입어 타이거 우즈(미국), 필 미켈슨(미국), 비제이 싱(피지), 어니 엘스(남아공), 아담 스콧(호주), 루크 노블(잉글랜드), 세르히오 가르시아(스페인) 등 내로라 하는 강호들이 모두 출전하기 때문에 상위권 성적을 거두면 58위에 머물고 있는 세계랭킹을 한꺼번에 끌어 올릴 수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오렌지 군단' 온다



〈카윗〉

베어백호 내달 2일 네덜란드와 평가전

카윗·지오·훈텔라르 등 정예멤버 출동



〈지오〉

1998년 6월21일(이하 한국시간)은 한국 축구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남긴 날이다.

마르세유 벨로드롬경기장에서 열린 네덜란드와 프랑스월드컵 본선 조별리그 E조 2차전에서 한국은 필립 코쿠, 마크 오베르마스, 데니스 베르캄프, 판 호이토크, 로날드 데 보어에게 잇따라 골을 내주며 0-5 참패를 당했다.

1954년 스위스월드컵 헝가리전(0-9 패), 터키전(0-7 패) 이후 최대 점수차 패배였다. 차범근 감독은 사상 초유의 대회 중 경질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귀국길에 올랐다.

공교롭게도 당시 네덜란드 사령탑은 4년 뒤 한일월드컵에서 태극전사들을 이끌고 4강 신화를 쓴 거스 히딩크였다.

한국 축구에 영욕을 함께 안긴 네덜란드

의 '오렌지 군단'이 다시 한국 축구대표팀에 온다.

네덜란드 대표팀은 2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한국과 친선경기를 위해 30일 오후 1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이다. 9년 전 첫 맞대결 이후 이번이 두번째 격돌이다.

스타 플레이어 출신 마르코 판 바스텐 감독이 이끄는 네덜란드 대표팀은 20명의 정예로 꾸려졌다.

프랑스월드컵 당시 골문을 지킨 에드윈 판데르사르(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비롯해 클라렌스 시도르프(AC밀란), 아르연 로번, 칼리트 볼라루츠(이상 첼시) 같은 일부 주전이 부상 등 개인 사정으로 제외됐다. 하지만 공격수 디르크 카윗(리버풀)과 차

세드 스트라이커 클라스 안 훈텔라르(아약스), 노장 수비수 지오바니 판 브론크호르스트(FC바르셀로나) 등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6위(한국 51위)의 저력을 보여주기에 전혀 부족함 없는 선수들이 방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006 독일 월드컵에서는 16강에서 포르투갈에 0-1로 패해 8강 진출에 실패했지만 당시 멤버 중 12명이 이번 원정 길에 온다. 네덜란드는 한창 진행 중인 2008 유럽선수권대회 예선에서도 무패가도를 달리며 4승2무로 G조 선두에 올라 있을 만큼 여전히 한국으로선 버거운 상대다.

과연 '태극전사'들은 인방에서 9년 전 수모를 되갚아줄 수 있을까. 기대되는 한 관승 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축구스타 앙리 내일 방한

'아트사커' 프랑스축구의 세계적 스타 플레이어 티에리 앙리(30·아스널)가 5년 만에 방한한다.

현재 중국을 방문 중인 앙리는 후원사인 스포츠용품메이커 리복의 초청으로 전용기를 이용, 31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이다.

앙리의 방한은 프랑스 대표팀 멤버로 출전한 2002 한일 월드컵 이후 5년 만이다.

앙리는 4박5일 방한 기간 국내 팬과의 만남, 리복 매장 방문 및 사인회 등 이벤트에 참가하고 6월4일 출국한다. TV 프로그램 출연도 계획하고 있다.

6월1일 오전 10시 30분부터는 강남구 삼성동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는다. 기자회견 말미에는 리복 글로벌 캠페인의 한국 모델인 인기 가수 아이비와 만남이 예정돼 있다.

앙리는 2003~2004 시즌부터 3회 연속 득점 1위에 오르는 등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4차례나 차지한 세계 최고 스트라이커 중 하나다. /박진표기자 lucky@



30일(수)
▲메이저리그<디트로이트-텍사스>(08:00·Xports)
▲제6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 대회 개막전(12:00·KBSN Sports)
▲일본 프로야구<요미우리-소프트뱅크>(17:50·SBS스포츠)
▲프로야구<LG-삼성>(17:40·KBSN Sports), <KIA-현대>(18:30·MBC ESPN)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전국수석합격자배출 13,14회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학원

◇"서울"새롬행정고시학원 광주 상륙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전문학원(전국 25개 학원 체인)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TV방송출연 교수진/저자직강★

개강 6월 1일 첫진도 시작반 (주간반,야간반) •재직자 무료 수강생 야간반 60명 선착순 모집

합격률1위! 새롬행정고시학원 ☎361-8111 서구청앞(농성동)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난방 '갈레오' 원적외선 필름난방이 책임집니다.

난방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됩니다. 원적외선 필름난방은 고효율의 복사열 난방방식이기 때문에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됩니다. 원적외선에 의한 복사열은 시공구 연결.

원적외선을 방사하므로 필름효과가 있습니다. 필름난방에서 방출되는 강력한 원적외선 에너지는 우리 몸 내부를 먼저 따뜻하게 하여 혈액순환을 돕게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쉬운 난방공사. 반도체 도판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갈레오 필름난방은 평일 사용하러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쉬운 난방공사를 실현합니다.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 안심하세요. 타제품 열선대신 탄소면상발열체 사용으로 전자파 제로.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

(주)태양상사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TEL.(062)262-0101

BUCK SH SYSTEM ORDER MADE

전국대리점 정찰가격입니다

BUCKISH 유동점

꾸네오 이제는, 맞춤입는 기복복으로!

전통 영국신사의 멋과 합리주의 정신 벅쉬(BUCKISH)의 품격을 만나 보십시오

기성복보다 저렴하고 맞춤복보다 기품있는 영국식 합리주의 맞춤정장, 벅쉬 벅쉬만의 자랑 비정착 맞춤정장 기성복을 사지니 딱 맞는 사이즈가 없고 맞춤정장을 고집하거나 가격이 부담스러웠다면 이제 영국식 합리주의 맞춤정장, 벅쉬를 만나보십시오.

양동파출소, 아세아극장, 북개심가, BUCKISH 벅쉬 유동점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57-32 전 화 : 062-514-1741 팩 스 : 062-514-1745 후대폰 : 011-9603-1741

지리산한약방 (국내산한약재료사용)

다이어트·전립선염·조루·허리디스크

자세한 자료는 www.jir.wo.to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문의 (062)531-3636, 531-0700 523-4600, 011-9612-5530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57-32 지리산한약방